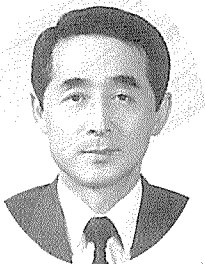


정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구 익 모

〈 석유협회 기획조사담당 이사 〉

1. 머리말

국내정유산업은 지난 30여년동안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국내 정제 능력은 세계 5위이며, 국내석유시장은 세계 6위수준이며, 원유수입규모는 세계 4위에 올라있다.

한편 정유산업은 '97년 1월 국내유가와 제품수출입의 자유화와 함께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정유산업의 성장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때로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던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철폐되었으며,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외개방도 올 상반기에 앞당겨 실시할 전망이다. 정유산업도 이제 국경없는 무한 경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외환·금융위기가 몰고온 IMF의 영향으로 정유업계는 원유수입난과 자금난, 내수의 급감, 가격경쟁의 심화등으로 정유업계는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 최근에는 제품수출시

장도 위축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으며 수출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IMF시대를 맞아 미증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정유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유산업의 현황

가. 석유의존도

석유는 산업의 필수적인 기초원료이자 연료로써 60년대 후반이후 주종에너지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다. 석유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고 사용의 편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8년에는 1차에너지소비의 63.3%를 차지하여 석유의 비중이 피크에 달했다.

그러나 '80년 제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석유의존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탈석유정책을 적극 추

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및 LNG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87년에는 43.7%까지 떨어졌다. 그후 국제원유가격이 장기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대폭적인 증설에 따라 나프타수요가 급증하고 승용차의 대중화추세에 따라 휘발유 수요가 폭증하여 석유의존도는 다시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94년 석유의 비중은 '78년 피크시에 육박하는 62.9%에 달했다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지난 해에는 57.6%에 머물렀다.

〈표-1〉 에너지원별 수요비중 추이

(단위: %)

	1978	1987	1994	1995	1996	1997
석 유	63.3	43.7	62.9	62.5	61.2	56.6
석 탄	26.0	38.0	19.5	18.7	18.4	21.1
L N G	-	3.1	5.6	6.1	7.4	8.4
수 력	1.2	2.0	0.7	0.9	0.8	0.8
원자력	1.5	14.5	10.7	17.8	11.5	12.2
기 타	8.0	1.9	0.7	0.7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97년은 잠정치

나. 정제능력

'90년대 중반까지 국내석유수요가 대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제시설의 증설이 추진, 순차적으로 완공되었다. 맨마지막으로 '96년 하반기 SK와 LG정유가 20만BPSD와 22만BPSD의 증설을 완공,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정제시설의 증설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현재 국내 정유5사의 공칭 정제능력은 2,438천BPSD로 약간의 잉여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정제시설의 *Debottlenecking*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정제능력은 공칭능력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정제능력추이

(단위: 천BPSD)

	1980	1990	1994	1995	1996/'97
S K	280	280	610	610	810
L G	230	380	380	380	600
한 화	60	60	275	275	275
쌍 용	60	60	325	443	443
현 대	10	60	110	110	310
계	640	840	1,700	1,818	2,438

한편, 최근 들어 국내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석유제품의 수요패턴은 경질화·저유황화되고 있다. 국내정유업계는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질유(B-C유) 분해시설과 탈황시설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고도화 시설능력은 중질유분해시설이 247천BPSD이며, 중질유 탈황시설은 145천BPSD(*Cracker feedstock*용 제외시 65천BPSD)이다.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고 건설추진중인 고도화 시설은 한화에너지의 중질유 분해시설 40천 BPSD, 탈황

〈표-3〉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현황

(산자부 허가기준)

(단위: 천BPSD)

시 설	현 행	증 설	계	준공시기
• 분해시설	247	40	287	
- HC	94	-	94	
- RFCC	153	40	193	'99.12
• 탈황시설	145(65)	100(30) -70(30) -30	245(95)	'99.12 '01.7

주: ()은 분해시설투입 원료용 제외시

시설 70천BPSD와 LG-Caltex의 탈황시설 30천 BPSD이다. SK는 기존분해시설의 Revamping 통해 분해능력을 7.5천BPSD 확장할 계획이다.

다. 원유도입

지난 2~3년동안 국내정제능력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원유도입량은 계속 늘어, '96년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데 이어 '97년에는 전년대비 21.0% 증가하였다.

국제원유가격은 금년중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국내도입단가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에 비해 배럴당 23센트 상승하였다.

'97년 총원유도입금액은 도입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96년도 145.1억달러에서 177.6억달러로 22.48%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약 33억달러가 늘어, 국제수지적자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총원유도입규모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4위이다.

<표-4> 원유도입량/금액/단가 변동추이

(단위: 백만배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도입량	399.3	509.4	560.6	573.0	625.0	721.9	873.4
증가율(%)	30.2	27.6	10.0	2.2	9.1	15.5	21.0
도입단가(\$/B)	19.59	18.54	16.58	15.53	17.31	20.10	20.33
도입금액(백만\$)	7,824	9,442	9,291	8,913	10,818	14,511	17,757

주: 1) 도입단가 및 금액은 C&F 가격임.

2) '97년은 잠정치임

원유도입물량을 지역별로 보면(표-6참조), 중동지역으로부터의 도입비중이 '95년 77.9%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96년 77.7%, '97년에는 73.7%로 더욱 하락하여, 중동의존도 감축노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96년 5.1%에서 '97년 9.5%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5> 세계 주요국의 원유수입현황

(단위: 천B/D)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이태리
7,302	3,789	2,122	1,923	1,697	1,518

자료: World Oil Trade(1997)

<표-6> 지역별 원유도입비중 추이

	'85	'90	'94	'95	'96	'97
중 동	57.0	74.3	76.6	77.9	77.7	73.7
아시아	24.2	20.2	15.5	12.7	13.5	12.9
남·북미	6.0	2.3	3.7	3.0	3.5	2.7
아프리카	12.8	3.1	3.9	6.1	5.1	9.5
기타	-	0.1	0.3	0.3	0.1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입국수	18	22	23	23	27	27

주: '97년은 잠정치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동이외의 지역은 석유매장량·생산량·수출여력·도입경제성 면에서 도입확대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 도입선다변화 등을 통한 중동의존도 감축은 앞으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 석유수급

(1) 가동률 및 제품생산

'96년말까지 정제능력(CDU능력)이 34%나 대폭 증가한 반면 '97년에는 국내석유소비가 경제불황여파로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정제시설의 가동률은 97.9%로 '96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높은 가동률은 국내정유업체가 그 동안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하던 제품은 증산으로 수입을 대

<표-7> 정제시설의 가동률 추이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6.8	89.0	90.7	98.3	94.2	97.9

주) '97년은 잠정치임.

채하고, 잉여제품은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97년 석유제품의 생산도 2년 연속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전년 대비 21.7%나 급증하였다. 특히 고도화시설의 증설로 등유·나프타·프로판의 생산은 각각 40.1%, 52.1%, 40.7%나 폭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공급이 크게 부족하던 이들 제품의 수급불균형이 크게 개선되고 따라서 수입수요도 감소하게 되었다.

〈표-8〉 제품별 생산추이

(단위:천배럴)

	1995		1996		1997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휘발유	60,459	20.1	70,934	17.3	78,648	10.9
등유	41,921	31.2	51,302	22.4	71,899	40.1
경유	180,908	5.9	216,446	19.6	263,973	22.0
나프타	88,319	32.3	103,128	16.8	156,875	52.1
B-C유	203,886	8.9	207,845	1.9	224,971	8.2
제트유	34,981	38.4	38,819	11.0	42,438	9.3
프로판	4,420	2.4	5,381	21.7	7,571	40.7
부탄	11,622	15.3	10,654	-8.3	13,610	27.7
기타	16,905	8.0	19,905	17.7	21,430	7.6
계	643,422	14.4	724,415	25.9	881,417	21.7

주: '97년은 잠정치임.

이처럼 제품의 수급밸런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해외석유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국내석유수급은 종전에 비해 그 만큼 더 안정될 수 있게 되었다.

(2) 석유수요

'92년까지 두자리수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국내석유소비는 '93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95년부터는 한자리수로 낮아졌다. 그리고 '96년에는 마침내 GDP성장률(7.1%)을 하회하는 6.5% 증가에 그쳤으며, '97년에는 극심한 경제불황

으로 인해 증가율이 더욱 낮아져 전년 대비 3.8%에 머물렀다. 이는 제2차 석유�위기 발생했던 '85년(1.0% 감소) 이후 12년만의 최저수준이다. 유종별 소비추이는 〈표-10〉과 같다.

〈표-9〉 국내 석유소비 증가추이

(단위:백만배럴,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514.2	564.6	621.5	677.2	721.2	748.2
21.1	9.8	10.1	9.0	6.5	3.8

주) 하단은 전년대비증가율
'97년은 추정치임.

〈표-10〉 유종별 석유소비

(단위:천배럴)

	1995		1996		1997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휘발유	59,385	16.2	67,971	14.5	71,358	5.0
등유	62,669	31.0	73,660	17.5	78,675	6.8
경유	163,113	10.9	172,405	5.7	166,789	-3.4
나프타	131,289	6.7	141,273	7.5	157,745	11.7
B-C유	162,793	1.9	163,236	0.3	165,444	1.4
제트유	16,270	13.6	17,848	9.7	19,299	8.1
프로판	46,350	10.5	47,608	2.7	49,167	3.3
부탄	20,109	-6.5	20,834	3.6	22,463	7.8
기타	15,277	3.1	16,227	6.6	18,120	11.6
계	677,204	9.0	721,062	6.5	748,059	3.7

주: '97년은 잠정치임.

한편 국내석유소비규모는 '97년 BP통계에 따르면 국제빙커링 등을 포함해 2,145B/D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석유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연 17.3배럴로 일본(16.9배럴)을 추월하여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석유소비수준이 높은 주원인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소비중 석유의존도가 주요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데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석유소비절약이 미흡하고 설비나 기기의 효율이

떨어지고 산업구조도 아직 에너지다소비업종이 많은 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석유소비를 보면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수요는 '97년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로 석유화학의 증설에 따른 나프타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1.2%의 비

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산업부문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수송부문은 불황의 영향으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가 둔화되고, 교통체증과 유지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행의 자제 등에 따라 3.3%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발전부문은 '96년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새로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일부 석유화력발전이 대체되어 석유수요가 감소로 반전되었다.

<표-11> 세계 국별 석유소비 추이

(단위:천B/D)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미국	일본	구소련	중국	독일	한국	이태리
17,400	5,830	3,935	3,615	2,920	2,145	1,955

주) '97년 BP 통계 내수기준(국제병커링, 정유공장의 연료 및 Loss 포함)

<표-12> 국별 1인당 석유소비량('96년 기준)

(단위:배럴/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독일	이태리	프랑스
24.2	21.4	17.3	16.9	13.1	12.5	12.1

주) 석유소비량은 BP자료 기준

<표-13> 부문별 석유수요 추이

(단위:백만배럴)

	1995		1996		1997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산업	266.1 (39.3)	2.9	281.6 (39.0)	5.8	313.2 (41.9)	11.2
수송	193.7 (28.6)	13.7	212.7 (29.5)	9.8	219.9 (29.4)	3.3
가정·상업	132.6 (19.6)	14.6	140.7 (19.5)	6.1	139.8 (18.7)	-0.6
공공·기타	10.0 (1.5)	-0.5	10.7 (1.5)	7.0	10.1 (1.4)	-5.6
발전	62.2 (9.2)	11.1	63.6 (8.8)	2.3	56.9 (7.6)	-10.5
도시가스	12.7 (1.9)	25.0	11.8 (1.6)	-7.9	7.8 (1.0)	-33.8
계	677.2 (100)	9.0	721.1 (100)	6.5	748.1 (100)	3.7

주 1) ()내의 총수요대비 점유율

2) '97년은 잠정치임.

(3) 석유제품의 수출입

석유제품의 수입은 '95년부터 정유사들의 증설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면서 급격히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 '95년에는 10.1% 증가에 머물렀으며 '96년에는 전년대비 2.9%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97년에는 전년도의 대폭적인 공급능력의 확충과 일부 고도화시설의 완공등으로 국내생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제품수입이 마침내 전년대비 17.8%의 급격한 감소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수입급감은 국내석유수요의 부진에도 일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수입의 급감에 따라 총내수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32.0%에서 '97년에는 25.4%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 같이 수입제품의 비중이 낮아지므로써 국내석유수급 불균형과 수급구조의 취약성이 상당히 개선되게 되었다.

반면 석유제품의 수출은 최근 들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97년에 전년대비 30.7%, '96년에 30.2% 증가에 이어 '97년에는 제품수출이 전년에 비해 41.1%나 급증하였다. 이처럼 제품수출이 급격히

<표-14> 제품수입 증가율 및 수입제품의 비중

(단위:천배럴,%)

	제품소비(A)	제품수입(B)	수입비중(B/A)
1994	621,498	203,986 (17.6)	32.8
1995	677,204	224,503 (10.1)	33.1
1996	721,196	230,919 (2.9)	32.0
1997	748,059	189,867(-17.8)	25.4

주 1) '97년은 잠정치임

2) ()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표-15〉 제품수출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천배럴,%)

	제품생산(A)	제품수출(B)	수출비중(B/A)
1994	568,452	93,926(-9.7)	22.4
1995	643,422	122,798(30.7)	24.8
1996	724,415	159,831(30.2)	22.1
1997	881,417	231,771(41.1)	26.3

주 1) '97년은 잠정치임

2) ()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제품수출의 급감요인인 생산능력의 확대와 수요증가의 둔화이외에, 정유업체가 잉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이들 시설의 가동율을 가능한 높이고 수출시장확대에 주력한 것도 한요인으로 풀이된다.

최근의 유종별 수출입추이는 〈표-17〉 및 〈표-18〉과 같다.

라. 석유유통

최근 들어 주유소거리규제와 허가기준이 폐지·완화되면서 주유소신설이 붐을 이루어 그 수가 석유수요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대폭 증가하였다. 석유수요의 경질화에 따라 그 동안 수요 증가율이 높았던 휘발유·등유·경유는 유통구조상 주로 주유소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주유소 신설분이 가열되었으나, '96년부터는 석유수요 증가의 둔화추세와 함께 주유소당 판매량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증기추세가 한풀 꺾이여, 전년대비 9.1% 증가에 그쳤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국내 유가가 자유화되어 공급업자간의 가격경쟁이 가열됨과 동시에 소매업자간의 경쟁도 치열해 지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주유소신설이 현충 더 둔화되고 있다. '97년말 현재 전국의 주유소

〈표-16〉 최근의 제품별 수입추이

(단위:천배럴,%)

	1996		1997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등 유	27,679 (12.0)	18.5	15,769 (8.3)	-43.0	
경 유	18,540 (8.0)	-42.4	3,134 (1.7)	-83.1	
B - C	29,143 (12.6)	17.4	26,570 (14.0)	-8.8	
나프타	80,204 (34.7)	11.5	76,361 (40.2)	-4.8	
프로판	44,097 (18.1)	1.7	46,750 (24.6)	6.0	
부 탄	11,052 (4.8)	13.5	10,476 (5.5)	-5.2	
기 타	20,204 (8.9)	5.3	10,808 (5.7)	-46.5	
계	230,919 (100.0)	2.9	189,867 (100.0)	-17.8	

주 1) '97년은 잠정치

2) ()은 유종별 비중임

〈표-17〉 최근의 제품별 수출추이

(단위:천배럴,%)

	1996		1997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휘발유	2,546 (1.6)	476.0	9,944 (4.3)	290.6	
등 유	2,913 (1.8)	416.5	10,250 (4.4)	251.2	
경 유	54,208 (33.9)	27.7	93,454 (40.3)	72.4	
B - C	41,491 (26.0)	3.1	50,432 (21.8)	21.5	
나프타	30,771 (19.3)	44.2	36,672 (15.8)	19.2	
제트유	16,670 (12.3)	46.4	19,942 (8.6)	19.6	
기 타	8,232 (5.2)	97.3	11,076 (4.8)	34.5	
계	159,831 (100.0)	30.2	231,771 (100.0)	45.0	

주 1) '97년은 잠정치임

2) ()은 유종별 비중임

〈표-18〉 주유소 증가 추이

(년도말 기준)

(단위:개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주유소수	5,210	6,212	7,296	8,371	9,130	9,928
증 가 율	25.6	19.2	17.5	14.7	9.1	8.7

자료) 산업자원부

수는 9,928개로 전년도말에 비해 8.7% 증가 하였다. 석유제품 특히 경질제품의 유통은 증진 석유사업법

상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의 3단계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정유사 → 주유소간의 직거래가 정식으로 허용되었다. 이러한 직거래의 허용과 함께 IMF 체제하의 기업구조조정노력의 일환으로 각 정유사들은 직영대리점 또는 자회사인 석유판매회사를 본사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마. 석유제품의 가격

(1) 가격구조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지난 '97년 1월 자유화된 이후 가격조정시 정유사는 변경된 가격을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부터는 사전신고제마저 폐지되어 명실상부한 완전 자유화가 되었다.

석유제품가격은 원유도입관련비용이 총원가의 대략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경영합리화등으로 흡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지난 연말 외환·금융위기이후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 휘발유의 소매가격이 사상처음으로 리터당 1,000원대

를 넘어 1,215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소매가격의 50% 이상은 정부부과금이다.

정유사 생산원가의 약70% 정도는 산유국으로 돌아가고, 휘발유의 경우 소매가격의 52% 정도는 세금이며 이 세금은 정유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정부에 납부하게된다. 따라서 정유회사는 '산유국의 수급회사이자 정부의 세금징수회사' 라는 농담이 실감있게 들리며, 또한 매출액에 비하여 수익성이 매우 저조한 요

〈표-20〉 주요국의 휘발유/ 경유소비자 가격

(단위: 원/ℓ)

	휘발유	경유
한 국('98. 1. 22)	1,215 (100)	755 (100)
영 국('97. 12)	1,718 (141)	1,708 (226)
벨기에('97. 12)	1,650 (136)	1,215 (161)
덴마크('98. 1)	1,572 (129)	1,250 (166)
프랑스('98. 1)	1,720 (142)	1,237 (164)
독 일('98. 1)	1,537 (126)	1,141 (151)
이태리('97. 12)	1,724 (142)	1,376 (182)
미 국('98. 1)	514 (42)	570 (76)
일 본('98. 1)	1,284 (106)	1,041 (138)
대 만('98. 1)	835 (69)	581 (77)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Energy Detente

2) 환율은 1,684원/\$ 적용

〈표-19〉 경질제품가격구조

(단위: 원/ℓ)

	구분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0.1%)
	세전	516.60	553.14	546.10
정유사가격	특소세 (교통세)	455.00	60.00	85.00
	교육세	68.25	9.00	12.75
	부과세	103.99	84.21	64.38
	세금계	627.24	153.21	162.13
	세 후	1,143.83	706.35	708.24
대리점가격	마진 (%)	1,157.39 (1.2%)	715.57 (1.3%)	715.82 (1.1%)
	주유소가격	1,214.26	756.43	755.16
	마진 (%)	56.87 (4.7%)	40.86 (5.4%)	39.34 (5.2%)
총유통마진	70.43	50.08	46.92	

주) '98. 2. 3 유계공조사가격

〈표-21〉 주요국의 휘발유/경유 세금비교

	한국 ('98.1.23)	일본 ('98.1)	프랑스 ('97.12)	독일 ('97.12)	영국 ('97.12)	대만 ('98.1)
휘발유가격(A)	1,214.72 ₩/ℓ	99 ¥/ℓ	6.29 Fr/ℓ	1.64 DM/ℓ	63.4 Pence/ℓ	17,082 NTD/ℓ
정부부과금(B)	633.68 ₩/ℓ	58.51 ¥/ℓ	4.874 Fr/ℓ	1.186 DM/ℓ	49.720 Pence/ℓ	8.48 NTD/ℓ
부과금 비율 (B/A)	52.17%	59.11%	77.49%	72.32%	78.42%	49.64%
경유가격(A)	755.12 ₩/ℓ	80 ¥/ℓ	4.52 Fr/ℓ	1.219 DM/ℓ	63 Pence/ℓ	11,887 NTD/ℓ
정부부과금(B)	166.40 ₩/ℓ	34.38 ¥/ℓ	3.05 Fr/ℓ	0.779 DM/ℓ	49.15 Pence/ℓ	5.2 NTD/ℓ
부과금 비율 (B/A)	22.04%	42.98%	67.48%	63.90%	78.02%	43.75%

주) 상기가격은 소매(소비자)가격임

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휘발유등 석유제품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부과금이 70%를 상회하는 나라도 수두룩하다. 예를 들면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독일 72.3%, 프랑스 77.5%, 영국 78.4%이다. 이로 인해 휘발유의 소매가격도 <표-20>에서 보듯이 영국·프랑스·이태리는 우리나라의 최고가격이었던 지난 1월의 리터당 1,215원보다 훨씬 비싼 1,700원선을 상회하고 있다.

바. 규제완화

지난 30여년간에 걸쳐 정유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되어 온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철폐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이와 아울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정유산업의 규모확대에 따라 정부의 규제로는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점진적이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93년 11월에는 석유유통부문의 대외개방에 미리 대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6대도시의 주유소거리규제가 폐지되고, 거리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던 기타지역도 '95년 11월부터는 거리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었다.

'94년 1월부터는 유가자유화의 전단계로 유가연동제가 도입되었으며, '97년 1월에는 정유산업의 규제

완화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석유가격과 제품수출입이 자유화되었다.

올 상반기에는 정유산업의 신규진입 자유화와 대외개방 및 석유소매업의 대외개방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정유회사는 외국기업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이것이 성사될 경우 국내업체와 국내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당면과제

가. 대외개방과 경쟁력제고

국내정유산업은 그동안 석유 전부분에 걸친 강력한 행정지도와 법적 규제로 민간기업의 창의와 자율이 억제되어 자생력을 키우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잇달아 시행되고 있는 정유산업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연속특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IMF환과가 엄습해 왔다.

정유업계는 구조조정과 초긴축경영을 통하여 최악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외개방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 대외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유산업의 경쟁력제고가 급선무이다.

그런데 현재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경영의 여건도 혁명적으로 급변하고 있고 따라서 경영상의 제약도 많아 정유업계는 대외개방에의 대응과 경쟁력제고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나. 석유유통의 합리화

석유제품의 특성상 일반소비유종(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는 주로 주유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세어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유소수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절대적이다.

더욱이 현재 정제능력은 다소 잉여상태이고 주유소수도 서구에 비하여 과다한 상태인 반면, 석유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제품수출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주유소 확보경쟁과 판매경쟁은 격화될 소지가 많다.

또한 앞으로 정유업과 석유소매업의 신규참여가 자유화되고 대외개방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주유소쟁탈전이 한층 더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석유제품은 바리다매형 상품인데다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차별화도 확인하지 않아 판매경쟁은 곧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은 필연적이며, 당연한 경제행위로 가치창조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장투자도 생산이나 기술개발투자등과 같이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자금의 지나친 이탈이나 수익성의 약화는 정유산업의 발전이나 경쟁력제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통업계의 건설한 성장과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고 정유업계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여 자생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의 과실을 소비자가 향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 물류시설의 확충 및 합리화

석유제품의 국내수송은 아직도 유조차와 연안유조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육상수송은 교통량의 증가로 운회회수가 감소되고 있고, 해상수송은 국내유조선단이 노후화되고 소형인데다 외국적선의 용선은 규제가 많고 항만시설도 한계에 달해 물류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수송선단의 대형화가 요구된다. 석유제품의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유조선수송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조선의 대형화가 효과적이며, 유조선의 대형화에는 저유소와 부두의 확장은 물론 저장탱크의 대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2차수송에 이용되는 유조차도 수송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대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석유수요의 증가와 민간비축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석유의 안정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유산업의 대외개방시 물류부문에서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저유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송수단별 합리화, 저유소별 합리화 등 개별적인 합리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종합적인 물류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유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정제코스트의 절감은 어느 정도 한계와 있으며 코스트자체도 국내의 정유회사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물류비용에서는 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물류체계의 개선등 물류부문의 합리화는 정유산업의 경영합리화, 나아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국내외 환경규제에의 대응

정유산업이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석유제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은 냉혹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유산업은 저공해 청정연료의 공급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갖는 기업으로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유사들은 앞으로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전제 아래 모든 의사결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외화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기업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여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IMF한파로 석유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기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도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수지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규제의 강화나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규제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유보할 필요가 있다.

마. 수요정체와 수익성위주의 경영

우리나라의 석유소비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6위권이며 국민1인당 석유소비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석유소비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며, 석유수요의 고도성장시대는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IMF체제하에서 무역수지흑자를 확대하고 또 흑자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제원유가의 약세추세가 지속되고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고유가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협약에 의거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CO₂배출을 감축하도록 국제사회로부터 강요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배출원인 석유의 소비증가둔화와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발전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산업부문등 전부문에서 석유의 대체가 추진되고 있는 것

도 국내석유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유종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정제시설가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석유수요정체기에는 정유업체가 과도한 시장확대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위주의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현재 정유업체는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료인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데다 현재와 같은 외환·금융위기시에는 180일까지 사용하던 Usance금융이 원활치 못해 원유수입에 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가자유화등 정유산업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자유화 추진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국내석유수요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두자리숫자의 고도성장 시대는 끝나고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위기상황하에서 국내정유산업은 생존을 위하여 구조조정과 초긴축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목전으로 다가온 정유업과 국내석유시장의 자유화와 대외개방을 앞두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정유산업은 과거 1세대에 걸쳐 축적한 경영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지혜를 모아 사상최악의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가경제와 산업의 혈액인 석유에너지를 차질없이 안정공급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